

JDI

제주도기자협회  
제주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 대선공약화를 위한 제주 핵심과제 모색

◆ 주제발표 제주 미래발전을 위한 10대 정책 아젠다

일 시 2012년 8월 23일(목) 15:00 ~ 18:00  
장 소 제주발전연구원 대회의실  
주 최 제주도기자협회 · 제주발전연구원  
주 관 제주도기자협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2012

## 대선공약화를 위한 제주 핵심과제 모색

- 일 시 : 2012년 8월 23일(목) 15:00~18:00
- 장 소 : 제주발전연구원 대회의실
- 주 최 : 제주도기자협회 · 제주발전연구원
- 주 관 : 제주도기자협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기자협회 · 제주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대선평약화를 위한 제주 핵심과제 모색**

□ 개최 배경과 목적

-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현안사항 및 제주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 아젠다 선정 발굴하고, 신공항 건설, FTA 등 제주지역 주요 현안사항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가정책산업으로 선정, 추진하는 계기로 활용
  - 국가가 제주지역에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국가적 차원의 당위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핵심 아젠다를 선정 발굴함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주요 핵심 아젠다에 대해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이끌어냄
-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세계 7대 자연경관 등의 제주의 세계적 브랜드를 활용하여 제주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사업 선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
- 제주지역 주요 현안사항이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의 추진의 도민 체감을 제고하며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

□ 행사 개요

- 일 시 : 2012년 8월 23일(목) 15:00~18:00
- 장 소 : 제주발전연구원 대회의실
- 주 최 : 제주도기자협회 · 제주발전연구원
- 주 관 : 제주도기자협회 · 제주발전연구원

□ 행사 프로그램

진행 : 박원배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시 간		세부 내용
개 회	15:00-15:10	<b>개회사</b> - 김재범 제주도기자협회장  <b>인사말</b> -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주제발표	15:10-15:50	제주 미래발전을 위한 10대 정책 아젠다 -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휴 식	15:50-16:00	coffee break
종합토론	16:00-17:20	<b>사 회</b> - 한삼인 제주대학교 교수  <b>토론자</b> -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 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김명범 새누리당 제주도당 대변인 - 고유기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정책실장 - 김성호 전 제주MBC 국장 - 강기춘 제주대학교 교수
폐 회	17:30	폐 회

# 개 회 사

## “제주의 희망을 담는 대선을 꿈꾸며...”



오늘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공약화를 위한 제주핵심과제 모색’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 지역의 핵심 아젠다를 찾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제18대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대권 승리를 위해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정권재창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통합당도 오는 25일 제주에서 대선후보 순회경선 막을 올리는 등 정권교체를 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재야나 다른 정당에서도 대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토론회는 대선을 앞두고 제주지역의 현안,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발굴하는 의미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희망을 담아내는 아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대선 주자와 각 정당의 공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제주는 대통령선거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판 뉴햄프셔’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 1987년 직선제가 부활된 이후 실시된 대선 때마다 제주지역에서의 각 후보 득표순위가 전국 상황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대 대선 노태우 후보를 시작으로 14대 김영삼 후보, 15대 김대중 후보, 16대 노무현 후보, 17대 이명박 후보가 모두 제주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각각 대통령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18대 대선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 주자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주 발전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면서 신명나는 선거축제의 장을 만들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실제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공동토론회를 제안해주신 제주발전연구원 양영오 원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 주제발표를 하시는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님,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내대표 새누리당 구성지 의원님과 민주통합당 박원철 의원님, 새누리당 제주도당 김명범 대변인님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고유기 정책실장님, 제주대학교 강기춘 교수님, 김성호 전 제주MBC 국장님, 사회를 맡게 되신 제주대학교 한삼인 교수님 모두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제주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8월 23일

제주도기자협회장 김재범

# 인 사 말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주미래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마음에서 오늘 행사에 참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론직필과 사회정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제주 언론인들의 모임인 제주도기자협회가 오늘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준데 대해 김재범 제주도기자협회장님과 각 언론사를 대표하는 기자협회운영위원님 그리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활발한 토론을 위해 좌장을 맡아주실 한삼인 제주대학교 교수님과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구성지 의원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원철 의원님, 김명범 새누리당 제주도당 대변인, 고유기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정책실장, 김성호 전 제주MBC국장님과 강기춘 제주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12월 19일 열립니다. 각 후보자들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과 약속하는 선거공약은 향후 국가 및 지역의 미래를 여는 매우 중요한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다시피 우리 제주의 경우, 신공항 건설, FTA 등 제주지역 주요 현안사항들이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되도록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제주도기자협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도 제주지역 현안사항 및 제주미래발전을 위한 핵심 아젠다 선정 발굴하고, 국가정책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과 세계 7대 자연경관 등의 제주의 세계적 브랜드를 활용하여 제주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사업 등 국가가 제주지역에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국가적 차원의 당위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주미래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제주미래발전 정책과제 발굴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거듭, 김재범 제주도기자협회장을 비롯한 도내 언론인 여러분과 주제발표 및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제주발전연구원장 양 영 오

주제발표

#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10대 정책 아젠다

강 창 민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10대 정책 아젠다

- 국가가 제주를 위해 꼭 해야 할 약속과 실천 -

2012. 8

제주발전연구원

# 1. 왜 제주에 지원해야 하는가?

1

**하나,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상당한 수준의 제도적 특례 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타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례 보장

▶ **국제화 및 지방분권의 선도적인 역할 모델 구현 가능**

**둘, 환경자원의 세계적 인증으로 세계적인 환경모범도시**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세계 7대 자연경관 등을 통한 생태 및 환경에 대한 국제적 브랜드 보유
- 2012년 WCC(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를 계기로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첨단녹색산업 육성 최적지**

## 2. 제주의 현재 모습

2

### 하나, 도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 2006년 7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 구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2011년까지 3,859건의 중앙정부 권한이 제주로 이양
-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규제완화 등은 전국 형평성 논리로 인해 핵심특례 이양이 보류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확대와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함

## 2. 제주의 현재 모습

3

### 들, 천만 관광시대의 도래에 따른 공항 인프라 부족

-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2011년 총 8,740천 명으로 2012년 10,000천 명 목표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목표
관 광 객	계(천명)	5.822	6.523	7.578	8.740	10.000
	내국인	5,281	5,891	6,801	7,695	8,500
	외국인	541	632	777	1,045	1,500
	증가율(%)	7.2%	12.0%	16.2%	15.3%	14.4%

▶ **관광객들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용용량이 한계에 달한 공항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 **2011년 12월 말 현재, 실제 항공수요는 17,200천 명으로 정부계획보다 4년이나 빨리 달성**

## 2. 제주의 현재 모습

4

### 셋,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1인당 소득

- 2010년 제주지역 GRDP는 10조 4,687억 원으로 전국의 0.9%, 1인당 GRDP는 19,147천 원으로 전국 평균의 80.6% 수준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도내총생산(십억원)	8,833.0	9,647.8	10,468.7
전국대비 구성비율(%)	0.9	0.9	0.9
1인당 도내총생산(천원)	16,193.5	17,661.7	19,147.2

▶ **제주가치를 활용한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녹색성장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국가적 노력 필요**

## 2. 제주의 현재 모습

5

### 넷, 전국대비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 2011년 제주산업구조는 농림어업 18.4%, 제조업 4.3%, 서비스업 77.3%로 서비스업 중심의 3차산업의 산업구조임
- 2010년 제주 1차산업 비중은 18.4%로 전국 평균(2.9%)에 비해 상당히 높음

산업구조(%)	2008년	2009년	2010년
· 농림어업	17.6	19.0	18.4
· 제조업	3.1	4.1	4.3
· 서비스업	79.3	76.9	77.3

▶ FTA 확대 등에 따라 감귤산업 등 1차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제주지역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 절실

-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감귤산업은 15년간 연평균 639억 원(누적 총액 9,589억 원)의 생산감소 예상(2011년 정부공식자료)

## 2. 제주의 현재 모습

6

### 다섯,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녹색섬

- 2011년 신재생에너지 대체율 5.1%, 온실가스는 2021년 BAU대비 43% 감축 목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등 녹색산업 육성기반 조성

▶ **카본프리 아일랜드** 조성을 위해 풍력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조성, 융합형 스마트그리드 조성등을 위한 국가의 지원 필요



### 3. 제주에 국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7

#### 하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지원

-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부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미비로 실질적인 발전에 한계
  - ▶ 신공항 조기건설, 국제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를 대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필요

#### 둘,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국제수준의 제도적 특례 이양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 미흡 및 재원 부족
  - ▶ 조세자율권 이양, 특별자치 지원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설치, 재정지원 및 특례 확대 등 특별자치에 걸맞는 권한과 재정 이양

### 3. 제주에 국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8

#### 셋,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제주현안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생태환경 보유,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 미흡
  - ▶ 세계환경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한·중 FTA 주요 농산물 초민간품목 지정, LAN연료 도 전역 조기보급, 제주 4·3의 완전해결 등 제주현안을 위한 특별한 지원 필요



#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아젠다

1  
2  
3  
4  
5  
6  
4  
5  
6  
4

**신공항 조기건설**

**세계환경수도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 스마트그리드 융합형 거점도시 조성**

**청정 LNG 연료 도 전역 조기보급 및 LNG 발전소 건설**

**도민 명예회복을 위한 4·3의 완전 해결**

**민·군복합양 관광미향 갈등 해결**

**제주 관광면세특구 지정**

**제주형 녹색산업 육성**

# 1. 제주 신공항 조기 건설

10

## ↓ 필요성

- 국토연구원의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2012. 4)』에서는 제주공항 포화시기가 정부안보다 6년 빠른 2019년으로 예측됨
  - 공항개발이 통상 7~10년 소요됨을 감안, 내년 착공해도 공기 부족
- 제주공항은 내륙 연결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현재도 사실상 포화 상태
  - 내국인 전체 항공수요의 78.4%를 제주노선에서 담당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
- 작년말 여객수가 정부 예측치를 4년이나 앞당겨 달성됨
  - 11년 말 여객수가 1,720만 명으로 정부의 2015년 예측치를 이미 달성
- 최근 연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誌에서 제주-김포 노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1위 선정(매일경제신문, '12. 5. 15)

## ↓ 사업개요

- 2013년 공항개발 용역을 착수, 기존공항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 여부 조속 결정
- 국가 공항계획에도 제주공항 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검토 예정
  -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계획(2011~2015)에서 '2014년 제주공항 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을 비교조사' 계획임

#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 결과

11

▶ **용역기간 : 2010. 6 ~ 2012. 4(국토연구원)**

▶ **포화시기 검토 : 정부안보다 6년 빠른 2019년 포화**

- ✓ 활주로 용량의 포화시기는 연간운항횟수가 172,000회에 도달하는 2019년으로 공항건설에 통상 7~10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제주공항의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성 제시

▶ **여객수요 및 운항횟수 추정**

구분		2015	2020	2025	2030
여객 (백만명)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11.1.5)	17.3	19.9	22.3	24.9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국토연구원)	21.0	24.4	28.0	32.1
운항횟수 (만회)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11.1.5)	12.7	14.8	16.6	18.6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국토연구원)	15.3	18.2	20.8	23.8

❖ 2011. 12월말 현재, 실제 항공수요는 17,200천 명으로 정부계획보다 4년이나 빨리 달성

▶ **신공항 및 기존공항 확장 대안 검토**

- ① 기존공항 확장(안) : 4개 대안 → 활주로의 이격 정도에 따라 1조~5조 소요
- ② 신공항 후보지(안) : 4개 대안 → 위치에 따라 3조~5조 소요

## 2. 세계환경수도 조성

12

- 제주의 청정환경 자산에 대한 체계적 통합관리를 통해 국격 향상에 기여
- 생물자원의 다양성 보전과 가치의 극대화를 통해 제주를 세계 환경수도로 조성

### 1) 세계적 자연경관 보전 프로젝트 추진(송·배전 선로 지중화 사업)

#### ↓ 필요성

- 세계적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송전철탑, 송전선로 등 시설물로 인해 경관미를 저해하고 있어 송배전로 지중화를 통해 한라산, 오름, 해안선 등 제주 고유의 지형과 지세의 보전 필요
- 송·배전 철탑 및 선로 지중화 사업은 국가지원없이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

#### ↓ 경관보전지역 지중화 사업계획

- 사업규모 : 533.65km(전체 송·배전선로 길이 7,636km 중 7%)
- 사업비/사업기간 : 794,439백만 원 / 5년
  -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 : 90.45km(전체 송전선로 길이 175km 중 51.6%)
  - 배전선로 지중화 계획 : 90.45km(전체 송전선로 길이 175km 중 51.6%)

## 2. 세계환경수도 조성

13

### 2) 자연환경자산의 통합관리 및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지원법 제정

#### ↓ 필요성

- 제주의 자연환경자산의 브랜드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며 궁극적으로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 ↓ 사업개요

- 제주 자연환경자산의 통합관리 및 세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지원법 제정
- 2012년 WCC와 연계하여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과 이를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 2. 세계환경수도 조성

14

### 3) 제주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 ✦ 필요성

- 제주는 8,000여 종의 풍부한 생물종 다양성 지역으로 생물자원 전쟁시대(나고야 의정서의 ABS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 생물자원의 자산적 가치 극대화
- 제주권 국립생물자원관에 해양생물자원관 기능을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육상·해양생물자원 관리의 시너지 효과 도모

#### ✦ 사업개요

- 제주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 생태체험관, 생태연구동, 멸종위기종 연구동, 생태교육동, 방문자센터, 방문자 숙소, 야외생태공간, 재배온실 등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능을 부가한 복합생물자원관 건립·운영
- 사업비 : 1,600억 원(국비)
  - 국립생물자원관 1,000억 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분관 600억 원

## 2. 세계환경수도 조성

15

### 4) 하논 분화구 복원

#### ✦ 필요성

- 국내 유일한 마르(marr)형 분화구로 화구호수(化口湖水) 형성
  - 서귀포시 서홍동·호근동 일원(분화구 직경 : 1,150m~950m, 면적 : 65천평)
- 산소가 없는 혐기성 상태로 식생이 보존되는 이탄 습지 유지로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귀중한 환경자원의 가치
  - 5만년간 퇴적층 발달 : 15m 쌓임(천년에 30~40cm)

#### ✦ 사업개요

- 하논 생태숲 복원 : 750억원 소요(2005년 산림청 주관 용역 결과)
-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기상청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 3.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16

#### 1) 국세 자율권 제주 이양

##### ↓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조세경쟁력이 미흡
  - ❖ 홍콩 등 국제자유도시에는 5~10개의 세목, 저율의 조세 체계
- 제주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에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 이양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 이양 보류됨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획기적 규제완화와 함께 국세에 대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조세자율권의 제주 이양

##### ↓ 사업개요

- 제주자치도의 재정적 자율을 위하여
  -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세에 대한 자율권 및 사용권 부여
- 자율권 부여방식
  - “조특별법” 또는 “특별법” 에서 국세인 제주도특별세를 신설
    - ① 세 원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 ② 세율 등 결정방식 :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세율/감면여부 등을 중앙정부에 권고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
    - ③ 징수방식 : 세무서에서 징수해서 제주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이양

### 3.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17

#### 2) 보통교부세 증액

##### ✦ 필요성

- 법정률을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예전의 일반적 산정공식에 따른 경우보다 교부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특히,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법정율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
  - 재정수요 증가 사례 : 자치경찰단 조직확대, 7개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추가적 권한이양, 3,893건의 중앙정부 권한이양에 따른 비용 발생

##### ✦ 사업개요

- 별도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지료를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개발, 기준지표에 따라 산정하여 재정수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추가 교부(3%+a)
- 제주특별법에 단서조항 삽입
  - 법정률 규정 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법정률 규정 시에 반영되지 않는 추가적인 재정수요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조정율을 상향 조정

### 3.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 3) 지방소비세 법정률 제도 도입 추진

##### ↓ 필요성

- 2011년 제주도 지방소비세 안분률은 약 1.74%이며, 세입액은 519억원
  - 민간최종소비지출 약 1%, 지역별 가중치 300 적용
- 제주의 경우 지방소비세 미도입시 보통교부세 법정률(3%)배분액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배분율('11년 1.74%)을 비교하여 보면 '11년도에 358억원(배분비중 1.47%)의 재정순증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제주의 자원순증효과가 가장 낮게 배분되고 있음
  - ❖ 서울 : 보통교부세 미교부단체이며 지방소비세 순증액 4,647억원(100%)
  - 광역시 : 지방소비세 도입시 자원순증액 7,074억원(24.1%)
  - 기타 시도(제주 제외) : 지방소비세 도입시 자원순증액 12,325억원(5.58%)
  - 제주 : 지방소비세 도입시 자원순증액 358억원(4.6%)

##### ↓ 사업개요

-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방소비세의 법정률 도입
- 재정력지수에 따른 가중치 구분 적용(제주 법정률 3% 적용)

구분	수도권	기타 광역시	70% 이상	50%이상	50%미만	제주 배분율
가중치	100	200	300	400	600	
자치단체	서울, 인천, 경기		경남	충북,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3.0%

### 3.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19

#### 4)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위한 조세특례법 조속 개정

##### ↓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중앙권한 사무이양경비에 대해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와 상계 처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11.5.23)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세제한 특례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

##### ↓ 사업개요

- 제주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관련 재화·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 환급(제주특별법 제177조)
- 환급대상 : 공항, 항만 등을 통해 출도하는 제주관광객
- 적용품목 : 기념품, 특산품, 렌터카 대여
- 사업자 : 법인, 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제외)
- 운영기간 : 3년간 한시 운영

### 3.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20

#### 5)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 ↓ 필요성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근거인 특별법의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고, 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상이 점차 약해지면서 특별자치도의 추진동력은 점차 상실하고 있는 상황
- 핵심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추진의 한계 및 중앙부처간 협의 사항에 대한 조정 기능,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후 후속조치 기능이 취약한 실정

##### ↓ 사업개요

- 현재 국무총리 소속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지원위의 보좌 및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기능 강화
- 특히 핵심권한 이양에 따른 중앙부처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원활한 후속조치(예산 및 인력이 수반되는 사업)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상과 기능을 강화
  - ❖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 오키나와 등은 소관개발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단위의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음

### 3.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21

#### 6) 5개 구(舊) 국도 국가지원체계 도입

##### ↓ 구(舊) 국도 현황

- 1131호선(5.16도로), 1132호선(일주도로), 1135호선(평화로), 1136호선(중산간도로), 1139호선(1100도로) 등 5개 노선

❖ 국도의 지방도 전환( '07.1.1) 이후 구국도가 전국 국도관리에서 배제

##### ↓ 필요성

- 구(舊) 국도 제반기능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
- 향후 구(舊) 국도의 신규수요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체계적인 간선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망체계 개선이 시급함
  - 도내 구(舊) 국도의 확·포장, 시설개량 등 신규사업 필요구간은 200km 구간으로, 추정사업비는 총2조원 예상

##### ↓ 사업개요

- '11~'20년까지 13개 구(舊)국도 사업, 국비 8,968억원 투자 필요
- 구 국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이전 국가가 지정한 국도로 사실상 국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의 국도로 간주하여 『도로법』상 국도건설계획에 포함

## 4.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22

### 1) 한·중 FTA 대응을 위한 제주지역 감귤 및 주요발작물, 수산물 초민감품목 지정

#### ↓ 필요성

- '12. 5. 2 부터 협상 개시된 한·중 FTA 협상결과에 따라 제주지역 생명산업인 1차 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
  - 감귤 피해액 : 한·미 FTA 9,589억 원(15년 누적)  
한·중 FTA 1조 624~1조 5,969억 원(10년 누적)
- 한·중 FTA 협상 타결시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작목구조의 유사성 등으로 특히 제주지역은 타지역보다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제주지역 1차산업구조 18.4%(전국 2.6%의 7배)

#### ↓ 주요내용

-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전국 생산량의 99.8% 차지) 1단계 협상에서 양허제외 품목에 반드시 포함
- 전국 생산비중 20% 이상인 월동채소 당근(65%), 양배추(39%), 무(21%), 브로콜리(63%)를 초민감품목으로 추가 포함
- 향후, 제주 주요 어종인 갈치·넙치·조기(제주수산 조수입의 68%)를 수산업 분야의 초민감품목군으로 선정

## 4.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23

### 2) 제주 말산업 특구 지정

#### ↓ 필요성

- 말은 제주 역사·문화의 원형으로 말사육 농가는 1,119호로 전국 대비 58%, 마필은 21,797두로 전국대비 72%를 차지하며 ‘말의 고장’의 위상을 굳건히 유지

구 분	품종별 사육현황				전 국	비 고
	계	제주마	제주산마	더러브렛		
사육농가	1,119	273	657	189	1,915	전국대비 58%
마필(두)	21,797	1,398	15,421	4,978	30,396	전국대비 72%

- 제주는 섬 전체를 말산업 특구로 운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도 및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역
  - 「말산업 육성법」(‘11.9. 시행)에 따라 경마·승마·마육·연관산업 등 국가 말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최적지

#### ↓ 사업개요

-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 우수종마 육성·수출단지, 승마장 및 재활승마센터 등
- 말생산업, 관련소재산업, 관광산업과 연계한 선진국형 말산업 육성
- 승마장 시설 개선 및 부대시설의 현대화
- 말산업연구소 설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말산업 육성 CEO과정 등

## 4.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24

### 3) 종자·종묘·종축자원 허브 구축

#### ↓ 필요성

- 제주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지리적으로 종자·종묘·종축 보존을 위한 강점을 가지고 있음
  - 2011년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 시, 제주지역은 청정지역을 유지하였음
- 제주지역 주요 종자·종묘·종축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골든씨드 프로젝트에 적극적 참여

#### ↓ 사업개요

- 주요 농산물 씨드밸리 조성
  - (가칭)농업유전자원 백업센터 설립을 통한 고유·재래종자 유전자원의 수집 및 격리 등 유지 보전시설 설치 운영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제주지역의 청정 환경과 지리·기후적 이점을 살린 난지권 종자산업 지원센터 설치 추진
- 제주형 종축산업 기지·산업화
  - 제주특산 흑돼지, 흑우 종자 육성·보급 및 산업화 연계
  - 재래종·계통·품종·야생종·유전계통 종축 등을 조직적으로 수집·보존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유전자은행 설립
- 수산종묘 전략산업 기지·수출화
  - 제주수산 5대 전략품종인 참치, 홍해삼, 넙치, 전복, 해수관상어의 연구·개발·보급 및 수출을 위한 수산종묘 센터 확충
  - 수산종묘 육종연구 기반시설 및 장비 확충

## 5. 제주 스마트그리드 융합형 거점도시 조성

25

### ↓ 필요성

- 제주는 세계 최대·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기 구축되었으며, 이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여 융합형 거점도시 추진 필요
  - 정부는 전국 7개 권역에 3개의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 중
- 제주에 3개의 모델을 융합한 거점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전국 거점도시 사업의 효율성 확보
-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인 Carbon Free Island 완성 기반 구축
  - 전기자동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 ↓ 사업개요

- 제주 스마트그리드 융합형 거점도시 모델
  - 소비자형 거점 :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기술개발)→시범지역(실용화 모델 개발)→전역 확산(상용화)
  - 운송형 거점 : 전기자동차 공공인프라 조성 등 제주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추진과 연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충전인프라 구축
  - 신재생형 거점 : 제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에 따른 신재생연계형 ESS 집중 거점 구축
- 제주 실증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 센터 설립
- 스마트그리드 분야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추진

## 5. 제주 스마트그리드 융합형 거점도시 조성

26

### □ 국립 스마트그리드 인증센터 설립

#### ✦ 필요성

- 제주에 스마트그리드 통합인증센터 설립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및 실증사업, 관련 기업체를 활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 극대화 가능
  - 스마트그리드 기술·제품의 국제 표준화 및 상용화 지원 역할

#### ✦ 사업개요

- 제주 국립 스마트그리드 통합인증센터
  - 구좌읍 실증단지 스마트그리드 종합홍보관을 활용한 통합인증센터 설립
  -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시험평가 기능을 통한 표준화 및 관련 산업 발전 촉진
-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시험 평가
-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시험 평가
  - 충전소 설치관련 법규 정비에 따른 시험표준 및 충전기 표준 장비에 대한 충전기 시험 및 인증

## 6. 청정 LNG 연료 도 전역 조기보급 및 발전소 건설

27

### ↓ 필요성

- 정부(지식경제부)의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건설 중인 제주시 애월항 LNG인수기지가 완료(‘17년)되면 도내에 LNG 공급이 시작될 계획
- 도내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도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해저송전선로 증설과 LNG인수기지 건설을 연계하여 LNG 발전소 건설이 필요함
  - ❖ 내륙 전력부족시 수전량 감소(15만KW→4만KW), 해저송전계통 고장 시 광역정전 사례 (‘06. 4)

### ↓ 사업개요

- 대형 LNG 저장시설 설치
  - 2013년 지질, 수요지, 항만과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입지 조사
  - 도내 수요, 발전소, 스마트그리드 사업 등 연관사업의 추진에 맞추어 저장시설의 용량 결정
- 제주 전역 LNG 도시가스망 구축
  - ‘애월항~서귀포시’ 간 LNG 고압배관 설치 : 20" × 60km(840억 원)
- 제주 LNG 발전소 건설
  - 도내 LNG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구축

## 7. 도민 명예회복을 위한 4·3의 완전 해결

28

### ↓ 필요성

- 제주 4·3은 이미 진상규명과 정부차원에서 사과한 사건이며, 희생규모가 유사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
  - 제주 4·3(14,032명), 5.18항쟁(228명), 거창사건(934명), 노근리사건(163명)
- 제주 4·3평화재단 주관으로 4·3유족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위령제 매년 봉행
- 세계적인 냉전과 민족분단이 몰고 온 비극적 사건에 대하여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 의미 차원의 국가추념일 지정 필요

### ↓ 역사적 사건 국가기념일 지정 현황

- 역사적 사건에 관한 기념일은 3·15의거,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민주항쟁, 6·25사변 등 모두 5종
  - ❖ 6·25사변은 ‘안보의식 고취’, 나머지 4종은 ‘민주화’에 의미부여

### ↓ 역사적 사건 국가기념일 지정 현황

-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 의미 차원의 국가추념일 지정

## 8.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합리적 갈등 해결

29

### ↓ 필요성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국방부 및 해군), 제주도,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이 심각
- 현재 갈등상황에 대해 중앙정부의 소통 미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

### ↓ 해결방향

-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갈등 해결 의지 중요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찬·반 여부를 떠나 국가차원의 합리적 해결방안 제시 노력
- 지역주민(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법 제시

## 9. 제주 관광면세특구 지정

30

### ↓ 필요성

-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기간 중 선호활동 1위는 쇼핑이며, 총 지출경비에서 쇼핑비의 비율은 35% 이상으로 그 비중이 높아 여행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특정지역을 관광 면세특구로 지정 필요
- 한국의 여행수지를 개선하고, 제주를 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쇼핑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지원이 시급

### ↓ 사업개요

- 사업추진단계 : 1단계로 제주도내 특정지역을 관광면세특구로 지정, 2단계로 제주를 역외지역으로 간주하여 도 전역 면세지역화 추진
- 면세 대상 및 조세 : 국내·외 관광객이 구매하는 모든 재화\*·서비스에 대해 관세, 내국세 등 환급
  - \* Negative 방식의 내·외국물품 : 총포·도검, 문화재, 중독성 의약품 등 제외
- 면세방법 : 관광객(내·외국인)에 대해 사후면세 적용
- 특정 행정구역 전역 지정, 특정지역 개발 후 지정, 현행 면세점 중심 지정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사전 연구 등을 토대로 지정

# 10. 제주형 녹색산업 육성

## 1) 제주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조성

### ✦ 필요성

- 정부의 2017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4대 강국 진입 목표와 연계하여 EV기업 제주유치를 위한 제주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시범도 및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지정되었음
  -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BAU) 41% 감축
  -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 2020년까지 대중교통 중심 30% 대체(94천 대)

### ✦ 사업개요

- 제주지역을 EV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집중 지원
  - 공공부분 : 공용차량 및 공영버스 등 전기차 운행 및 보급 확대
  - 대학·기업 : 전기차 관련 연구개발(R&D)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
  - 민간 부분 : 렌터카, 택시 등 대중교통분야 EV보급 확산
- 전기자동차 R&D연구소, EV텔레매틱스, 필스테스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차 연구센터 구축
- EV기업 제주 유치를 위한 투자정책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 2) 외해 가두리 양식과 연계된 융·복합형 해상풍력단지 조성

#### ✦ 필요성

- 향후 2014년까지 총 누적설치용량이 15,000MW이상으로 예상되는 신규 거대시장 진출을 위해 경쟁력 있는 대형 국산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상황
- 해상풍력 기초시설물에 외해 양식시설을 결합한 융·복합시설을 구축하여 새로운 지역 경제 수익모델 창출
  - ❖ 해상풍력단지 국책사업 : 서남해안 지역(2.5GW, 92,000억 원)

#### ✦ 사업개요

- 1단계 사업 : 융·복합시설 실증단지 조성
  - 해상풍력 국산화 인증·실증 도모, 인증 및 실증된 기술 및 부품 수출 도모
  - 풍력단지와 연계한 가두리 양식 시범단지 조성
  - 스마트그리드와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등 해상풍력 R&D분야 지원
- 2단계 사업 : 융·복합시설 확대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2GW를 생산하여 Carbon Free Island Jeju 완성 도모(총사업규모 : 2GW · 31,750억 원)
  - 고부가가치 어종 생산에 따른 국익 창출 도모

감사합니다

